

은혜와 진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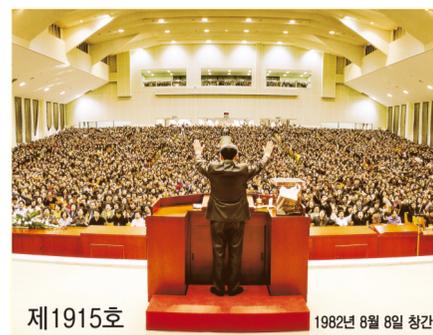
2025년 1월 26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15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은혜와진리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김 영 속 -

저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하는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랐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흥시로 이사를 와서 은혜와진리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후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이단에 속한 교회, 사이비한 교회가 많은데 저를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은혜와진리교회의 수구역장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한 시간부터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성경에 “내 아들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잠언 24:13)라고 한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또한 주중예배에 참석하여 강해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말씀이 난해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에 직장에서 사장님의 허락을 얻고 교회로 달려가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으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저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자 남편의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실어증에 걸려 병원에 실려 가기도 하고 머리에는 원형탈모증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데, 사람들은 저를 보고 무슨 걱정이 많아 머리까지 그렇게 빠지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처럼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며 치유를 확신하게 되었고, 거짓말처럼 머리털이 나기 시작하더니 탈모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어릴 적 교회에 다녔던 때를 생각하고 아동구역장 직분을 받아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눈치를 보지 않고 집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남편이 일을 하다가 낙상하여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몇 달을 치료받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누 남편이 신도시 전철역 앞에 있는 큰 건물을 매입하여 숙박업소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면서 저희 보고 와서 함께 운영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고 또 바빠서 교회에 다니기가 힘들 것 같아 적극 반대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곳에도 제가 좋아하는 은혜와진리교회가 있다면서 매일같이 사정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곳으로 이사한 후 예배가 있는 날에는 구역장 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 급히 교회로 뛰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찬송하며 돌아오면 남편의 화난 얼굴이 조금도 무섭지 않고 마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갑자기 이사하게 되어 아동구역예배를 드리던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였습니다. 연락을 드리고 싶어도 목이 메어서 전화를 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서야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흥성전의 구역장님들과 성도님들이 몹시 그리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 저기에 진 많은 빛을 차례로 갠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을 다 갠고 시흥시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던 학업의 꿈도 이루었습니다. 입학금이 없어 포기했던 전문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방법으로 입학금을 마련하게 해주시고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교회학교 유·초등부의 총무교사 직분을 권면 받고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순종하였습니다. 교구장님과 교회학교의 전도사님과 부장 장로님과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어린 영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헌신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지금까지 즐겁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린 학생들을 돌보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딸이 열심히 공부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딸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며 노력하게 해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 12월에 권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임을 알고 이를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핍박을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의 오랜 소망 또한 하나님의 섭리속에 곧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얼마 전 금요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권사님 한 분이 제 귀가 닳도록 교회와 목사님을 자랑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 가족과 이웃이 모두 저처럼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도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인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2권 (제7단원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제33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소망

- **본문** : 데살로니가전서 4:13-18
- **요절** :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 **찬송** : 168장(새찬송가 180장), 539장(새찬송가 488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들의 부활, 심판,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의 복락 등이 순차적으로 실현되는 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질 경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소유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큰 힘을 얻게 되고, 교회와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1.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근거한 확고한 언약입니다.

구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함께 언급되기도 하고 별도로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는 말씀은 초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만, 4절에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라는 말씀은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초림하실 그리스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초림하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양과 같은 분으로 묘사되었지만(사 53:1~9),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심판주로서 또 만국을 통치하실 왕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시 2:6~9, 사 11:6~10).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약은 신약성경에 자주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재림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3)고 하셨으며, 공회에 붙잡혀 대제사장들의 심문을 받는 자리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마 26:64)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계시하신 후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계 22:20)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 역시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2. 몸의 부활과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몸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당시 살아있던 성도들도 홀연히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즉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고전 15:51~53, 빌 3:21).

그리하여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어린양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의 혼인예식을 거행하고 7년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계 19:7~8). 이 때 땅에는 7년간의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7년간의 혼인잔치를 마치면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계 20:6). 천년 왕국의 평화로운 모습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10까지의 말씀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사단이 만국을 미혹치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계 20:3). 천년 후에 사단은 무저갱에서 잠시 놓임 받으나 곧 다시 붙잡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계 20:10).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살아날 것이지만 성경은 이를 가리켜 부활이라 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계 20:11~15).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므로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계 20:11~15).

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없어질 것이며(벧후 3:10), 그 대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계 21:1). 그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계 22:3~5).

사도들과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도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 한 어떤 환란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습니다(롬 8:17~18).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에 적극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